

스포츠 포커스

목포여성 배구부

“지애야 좀 더 빠르게 해라지, 해선이하고 콤비네이션을 더 맞춰봐!” 지난 3일 목포여성체육관. 전국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고 있는 목포여성 배구부원들이 더위를 아랑곳 하지 않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정진(33)감독은 한 호흡 돌릴 틈을 주지 않고 선수들을 한계까지 몰고간다. 이미 체육관 바닥에는 선수들이 흘린 땀으로 인해 미끄러져 플레이를 못 할 정도다. 하지만 감독과 선수 모두 제89회 전국체육대회 금메달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사진 왼쪽 아래부터 김주영, 김주하, 박다혜, 김혜선, 김하해, 문순기, 김화순선수. 뒷줄 왼쪽부터 염혜선선수, 장성호 목포여성 체육부장, 이재운전남배구협회 전무, 정진 감독, 김영현 코치, 고봉정, 김지애선수.

“전국체전 정상 올라 시즌 3관왕 만세”

올 춘계대회·대통령배 이미 석권

탄탄한 조직력으로 목표 달성 자신

올 춘계대회와 대통령배 우승 등 시즌 2관왕을 달성했지만 고향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승트로피를 뽐낸다면 2관왕의 의미가 퇴색해버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대통령배, CBS배에서 우승, 2관왕에 올랐지만 전국체육대회에서 은메달에 머물러 깔끔하게 시즌을 마무리 하지 못한 앙금이 남아있는 터라 올 시즌 전국체육대회를 준비하는 선수들의 눈빛은 다를 수 밖에 없다.

오전 9시~12시 30분까지 서브캐치와 서브리시브 등 기본기를 다지고, 오후에는 수비, 공격 등 전술훈련, 그리고 6시 이후부터는 본인에게 필요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한 체력훈련을 한다.

아침 눈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한 순간도 방심하지 못할 정도로 훈련이 짜여져 있지만 선수들은 불평없이 묵묵히 정 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지난해 전국체육대회 은메달의 아픔을 알기 때문이다.

주장 염혜선(3년) 선수는 “지난해 전국체육대회 결승에서 패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올 해는 그런 아픔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선수들이 한 마음으로 운동에 매진하고 있다”고 우승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염혜선 선수의 자신감은 선수를 면면을 살펴보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염혜선은 국내 최고의 세터로 지난해 최연소 국가대표에 선발 됐으며 실업팀 스카우트 1호다.

고교에서 배구를 시작했지만 192cm의 여고부 최장신에 빠른 공격을 구사하는 김지애(3년)의 센터에서 빠른 공격은 타 팀의 경계 대상이다.

레프트 김주영(3년)과 김주하(1년)는 자매. 키도 똑같이 175cm로 팀 주축으로 자리매김했다. 김혜선(2년)



은 리베로로 빠른 발과 순발력이 발군이고, 김희순(2년)은 주전센터로 집포와 체공력이 좋아 빠른 공격으로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선수 개개인의 능력도 탁월하지만 목포여성의 수비력과 조직력은 정평이 나왔다. 염혜선 세터가 이끄는 조직력은 서브리시브만 제대로 되면 어떤 팀이든지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진 감독은 이러한 팀 컬러를 알기 때문에 한 달여 남은 전국체전을 앞두고 서브리시브와 체력훈련에 주안점을 둔 훈련 스케줄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감독·선수들의 전국체육대회에 대한 강한 의지는 재단과 전남배구협회 등의 전폭적인 지원과 허버니를 이뤄 우승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이경수 재단이사장은 지난해 선수들의 지원을 위해 5천만원을 쾌척했으며 이호균 목포과학대 학장과 노정태 교장등 학교에서 선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이재운(목포과학대 교수) 전남배구협회 전무이사의 헌신적인 노력이 더해져 목포여성은 전국

최강의 전력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재운 전무이사는 “이사장님과 이 학장님들 관계자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연습에 임하고 있어 올 전국체육대회 배구 종합우승도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

지난 1994년 감독, 코치와 선수 6명으로 맞을 올린 목포여성 배구부는 다음해에 제5회 무등기 전국 남녀배구대회에서 3위를 거두며 이름을 알리더니 96년 시즌 전국관을 차지하는 기업을 토하며 전국배구계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이후 목포여성은 전국대회 19회 우승, 준우승 13회라는 금자탑을 세우며 배구 명문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이윤희(98년 졸업), 이소라(2005년 졸업)등 국가대표를 배출했다. 또 한국도로공사 담배인삼공사 등 국내 유수의 실업팀에 선수들이 스카우트를 받고 있다. 목포여성 배구 선수들이 내뿜는 합성과 흘린 땀방울이 오는 10월 전국체육대회 금메달을 예약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함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독자 서비스국(062)220-0551

농협중앙회천년품미향우촌

광산구 쌍암동 첨단리전시비@위성북총합상가 소비자직접구입행사저렴하게 드실수 있습니다. 대표 전희국 ☎(062)973-1166

골든공인중개사

광산구 월계동 두산1차상가 105호 아파트.상가.토지.매매.임대.수시접수 대표 노현의 ☎(062)973-0461

국제광택전문

서구 풍암동 한병병원에서 신암교회가는길 광택.코팅.부분도색.스팀세차 ☎(062)655-9690

푸른건강원

북구 풍향동 광주교대편 E마트 맞은편 영민제증.포도중.축협소계소.봉어중.각종과일점 대표 이동현 ☎(062)512-2752

짚까군다리치킨

북구 문암동 덕산블루밍@309동앞 치킨바베큐.시원한맥주.맛있는일품요리.이특한축식공간.가족.친구.연인과함께 ☎(062)525-0326

무비철학관

여수시 공화동 구세종각호텔 뒤편4거리 사주.궁합.작명.택일 사업업.매매운.자녀운 ☎(061)662-5130

캠블러라인진(광주점)

광산구 쌍암동 롯데마트 주차장입구 앞 오픈기념30%~50%세일 CK언더웨어입점.빙문고개분개 CK 언더.벨트.비슬터백증정 ☎(062)971-0047

청평전현숙국밥(지원점)

동구 용산동 지원2동사무소옆 국립전문점 단체손님환영 대표 김선영 ☎(062)234-8298

곰분식

동구 학동3거리 삼성디지털 프라자옆 단정짜거리면.김밥.콩국수.오명전문 대표 송영숙 ☎(010)5644-5113

대원축산

북구 오치동 서산초교앞 100%한우만 취급 100%한우삼국.국내산 임대지판매.장성대원농장직영 ☎(062)264-3005

청와대(양산점)

북구 용동 해양명원 건너 인덕교회 맞은편 고급 중국요리 전문점 김치는 직접담궈배달 ☎(062)573-5810

김밥천국

북구 문암동 덕산블루밍@309동앞 김밥류.면류.분식류.식시류.양식류등 맛과 멋으로 봉사하는 친절함의 고향 ☎(062)531-2282

토마토화실

쌍촌동 신천힐담상가내 207호 화기를 꿈꾸는 아이들 대표 이현정 ☎(062)375-5062

초이스호텔

광산구 월계동 한평한우촌옆 깨끗한환경.아늑한분위기.최신시설완비 대표 임이택 ☎(062)971-3232

굽너치킨(학동점)

동구 학동 학동동사무소앞 전고객께 신시대 브로마이드드립니다. 대표 이현미 ☎(062)234-9494

SK텔레콤(웹코리아대리점)

서구 화정4동 염주거리 서광주서우면 남구 봉선동 리안호천@37거리 코너 동구 신수동 신수5거리 신정입구코너 ☎(062)375-3300

중앙총포사

북구 유동 한국노총앞 수렵용총.공기총.시적용총.호신술기총.전자총격기.방범장비.수렵장비일괄 ☎(062)526-0526

지산건강원

북구 양산동 등남@앞 건강용품 전문점 대표 김길용 ☎(062)572-6097

현자등차서비스

북구 본촌동 본촌초교건너 승용디젤.CRD.LPG차량전문.신속.정확.친절.민중.차량정비의 모든 것(상담환영) ☎(062)576-8204

하동정숯불바베큐

동구 황금동 런던악거리 구늘부보뽕 허브향소로 발효시킨 통삼겹살바베큐.갈비바베큐.오리바베큐 ☎(062)222-3247

(주)송정금호축산식육식당

광산구 쌍암동 첨단 롯데마트옆 한우꽃갈비살.한우꽃등심.생고기.육회.암소모듬구이.비빔밥.돼지고기류.단체손님환영 ☎(062)973-0155~6

들다방

동구 소태동 남흥당한약방 지하 대표 임성식 ☎(062)222-4812

광주개인택시매상사

LPG중고차 본촌동☎(062)571-0764 신안동☎(062)525-7989

에덴직업소개소

남구 백운동 프리자호텔 건너편 문중벌초대형전문.출세.취업.시각.주방장.침모.토목철거.묘지상담 ☎(010)2625-0404

한울이용원

서구 광천시장 동사무소옆 컵트.스포츠.염색전문.모범업소 대표 김창호 ☎(062)362-8051

밤실로의원

북구 두암동 청아맨션 맞은편 구대동제약1층 안과.황개.사미.침.전료전문.보톡스.성형.원장 황경식 ☎(062)265-0627